

'충간소음' 겨울철 민원 여름보다 53% 증가

접수 민원 12~2월 연평균 1만746건 여름 접수 민원보다 53% 증가 수치 충간소음 예방교육·포스터 배포 등

환경부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충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겨울철 충간소음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018~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8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2월은 연평균 1만

746건이다.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겨울방학 등을 맞아 충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충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충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 이날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분사분 충간소음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어린이 환경보전 홍보대사 헤이지니의 온라인 방송채널을 통해 충간소음 예방을 위한 짧은 동영상도 공개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충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연말연시 충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인스타

그램에서는 주침을 통해 충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 실내용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한편 '사분사분 충간소음 예방교육' 자료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충간소음 갈등 조정 교육' 등 영상 자료는 충간소음 예방교육 누리집(noisedu.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 장관은 "가정 내에서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충간소음 배려 문화를 실천해 나와 이웃 모두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광주보훈청, '광주 독립·호국·민주 교실' 종합우수학급 시상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에서는 지난 15일 2022년 '광주 독·호·민 교실' 종합우수 5개 학급을 시상하였다.

김재환기자



광주전남병무청, '조직성과관리TF팀' 간담회 개최

광주전남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지난 15일 청내 소회의실에서 '조직성과관리TF'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양경찰,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펼쳐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15일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해경, 관내 중학생 진로 강의 미래주역과 소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15일, 관내 중학교 운영 협조 요청에 따라 완도중학교 세미나실에서 중학생 약 160명에게 진로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6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 운영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최근 강진오감동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최태원 주식가치 증가 기여 인정해야”

노소영 “1심전부 불복, 오늘 항소” “최태원 주식, 혼인기간 중 매수” “내조 기여도 불인정, 법리적 오류” 法, 최태원→노소영 665억 지급 판결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1심 결과에 전부 불복하며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전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도 아니며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분쟁에 회사 경영이 좌우되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할 때 회사 경영·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 6일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

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밝힌 실제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이고,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50% 정도인 648만7736주로 확인됐다. 최이슬기자

건물 바닥 균열·뒤틀림 입주자 철령

광주 도심 한 사무용 건물에서 발견된 바닥 균열·뒤틀림 현상으로 긴급 대피한 입주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야 했다. 2년 전부터 해마다 광주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 건축 붕괴 사고로 가혹이나 커진 불안감을 좀처럼 감추지 못했다. 최초 신고자 이모(36)씨는 19일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바닥에서 ‘타다타다’하는 소리가 나서 아래를 봤더니 금이 갔다. 1초도 안 돼 전선 터지듯이 ‘파바박’하는 소리와 함께 타일이 줄줄이 깨졌다”고 밝혔다. 5층 보험회사 사무실 직원 채모(34·여)씨도 “타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순간 건물이 무너지는 건가, 지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짧은 시간 스쳐지나가 두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실에 또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니 불안하다. 균열이라고 해서 타일 보수공사만 할 게 아니라, 꼼꼼한 안전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6층 사무실 직원 고모(30·여)씨는 “무거운 의자가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난지 얼마 안 돼 대피하라고 했다”며 “갑자기 건물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최근 광주에서 두 차례나 대형 건축물 붕괴사고가 일어난 만큼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주업체 직원 차모(50·여)씨는 “광주에서 2차례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에서 철저하게 안전 진단을 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날 낮 12시 32분께 광주 서구 차평동 한 6층 규모 건물 중 5층 사무실에서 ‘바닥 건축재에 금이 가고 뒤틀러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입주 기관·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소방 당국·지자체 건축 담당자는 합동 건물 안전 진단을 벌이고 있다. 오유나기자



졸업을 축하합니다

19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수리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